

(단위: %)

		사례수	인지도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보았다	잘 모른다
전체		(800)	31.8	1.9	12.8	17.1	68.3
성별	남자	(392)	38.0	2.3	14.8	20.9	62.0
	여자	(408)	25.8	1.5	10.8	13.5	74.3
거주 지역별	서울	(363)	33.8	2.2	14.0	17.6	66.1
	부산	(126)	25.4	0.8	13.5	11.1	74.6
	대구	(85)	27.1	2.4	14.1	10.6	72.9
	인천	(92)	31.5	1.1	6.5	23.9	68.5
	광주	(47)	46.8	0.0	14.9	31.9	53.2
	대전	(50)	42.0	2.0	16.0	24.0	58.0
연령대별	울산	(37)	10.8	5.4	2.7	2.7	89.2
	20대	(171)	29.2	2.9	9.9	16.4	70.8
	30대	(176)	23.3	1.1	11.4	10.8	76.7
	40대	(179)	41.4	2.8	15.1	23.5	58.7
	50대	(136)	39.7	0.7	19.1	19.9	60.3
최종 학력별	60대 이상	(138)	25.3	1.4	8.7	15.2	74.6
	중졸 이하	(86)	21.0	1.2	9.3	10.5	79.1
	고졸	(357)	30.8	1.4	13.4	16.0	69.2
	대졸	(342)	34.8	2.3	12.6	19.9	65.2
월 가구 소득별	대학원 이상	(15)	46.7	6.7	20.0	20.0	53.3
	100만원 미만	(25)	20.0	0.0	12.0	8.0	80.0
	100-250만원 미만	(164)	30.5	0.6	9.8	20.1	69.5
	250-400만원 미만	(340)	31.7	2.6	15.3	13.8	68.2
	400-600만원 미만	(241)	34.0	2.1	11.6	20.3	66.0
직업별	600만원 이상	(30)	30.0	0.0	10.0	20.0	70.0
	농/어/임업	(1)	0.0	0.0	0.0	0.0	100.0
	자영업	(117)	41.0	1.7	16.2	23.1	59.0
	판매/서비스직	(149)	31.6	0.7	16.1	14.8	68.5
	기능/숙련공/일반직업직	(76)	22.3	0.0	10.5	11.8	77.6
	사무/기술직	(202)	36.7	4.5	12.4	19.8	63.4
	경영/관리직/전문/자유직	(20)	60.0	5.0	25.0	30.0	40.0
	가정주부	(142)	24.0	0.7	10.6	12.7	76.1
재외동포 접촉 유무별	학생	(66)	25.8	1.5	6.1	18.2	74.2
	무직	(27)	18.5	0.0	7.4	11.1	81.5
재외동포 친인척 유무	있다	(355)	41.3	3.9	18.0	19.4	58.6
	없다	(445)	24.0	0.2	8.5	15.3	76.0
재외동포 친인척 유무	있다	(135)	38.5	3.0	13.3	22.2	61.5
	없다	(665)	30.4	1.7	12.6	16.1	69.6

자료:(재외동포재단, 2010:62)

셋째, 한상대회 기간 전시회나 1:1미팅을 통해 상담한 금액이나 계약금액이 한상대회이후 실질적인 거래로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담금액이나 계약 금액을 실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상대회의 교역 및 투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한상대회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대회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외동포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의 문제이다. 옥타 등 특정단체의 독주에 대한 다른 단체의 불참이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미주상공인총련이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¹²⁾ 등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조선족 기업가들의 참가자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규모에 비해 교역 성과나 역할이 미약하다. 중국 조선족 출신 한상들의 한상대회 참가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미주나 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참가한 한상들과 많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에

12) 2008년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에 등록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은 1명이다(재외동포재단, 2009:65)

결림들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동포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이념적 혹은 지역적 특색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대분 한국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홍보와 거래의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의 수요가 많은 구소련지역이나 중남미, 유럽 지역 한상들의 참가가 소수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세계 각국의 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해외 참가하는 한상들의 국가 편중현상이다. 2008년 국외 참가자 135개국 1,337명중 미국이 541명, 중국이 432명, 일본이 136명이다. 30여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규모는 10명이하가 참가하고 있다. 거주국별 한상들의 인구규모나 경제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주요 5개 국가에 편중된 참여는 한상대회가 추구하는 한국의 글로벌 전략과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한상대회 활성화 방안

1). 정부차원의 세계한상대회 운영 개선

세계한상대회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한국의 글로벌 전략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한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한상대회를 운영하는 정부의 측면과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한상네트워크는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의미하므로,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요구되는 민족교육이나 문화 등의 정책과는 달리 참여자 모두가 경제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는 아직 구축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게 되면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김재기, 2007:79).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한상대회의 목표, 주관 및 주최기관, 개최장소, 개최주기, 대회 내용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상대회의 경우 주관과 주최를 모두 재외동포재단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단순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해 세계한상대회에 참여 규모가 가장 많은 World-OKTA의 경우는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 옥타의 경우 국제사무국을 두고 있고, 세계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를 지방을 순회하며 14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51여개 국가에 94개가 넘는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재외동포재단 한상팀과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아웃소싱에 의해 개최되는 한상대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